



보조금 속이면 '벌금'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똑같은 휴대전화 모델을 같은 날에 사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수십만

원을 받는다.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사의 임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50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크다. 이동사는 판매점에 대한 관

이통사·단말기 제조사 시장 교란시 3% 과징금·3억 벌금

유통점 최대 5천만원 과태료...단말기 유통법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동사나 대리점·판매점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조사가 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동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이동사나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동사 역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동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도 관련 매출액의

원까지 차이 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동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꿀짜폰' 상술도 금지된다.

이같은 금지조항을 어긴 이동사의 임원도 직접 제

리·감독 책임도 지게 됐다.

현재 '월드·올레·U+스퀘어' 등 대리점은 이동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만, 이동 3사의 서비스는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이동사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동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이동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지연할 수 없다. /연합뉴스

나홀로 영업 'KT' 6일만에 9만명 가입

통신업계 과다 보조금 논란...방통위, 실태조사

KT가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한 것을 둘러싸고 통신업계에서 과다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간 KT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고객은 1만 5000명이며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평균 2만3000명을 모집한 셈이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LGU+) 등 경쟁사 단독영업 때의 일평균 고객 수 천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KT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긴 탓에 대기 수요가 많았던 데다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등 출고가를 인하한 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덕분"이라며 "실제로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의 40%가 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며, 갤럭시S5등 최신 단말기에 80만원대의 과도한 보조금을 뿌린 탓"이라고 반박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KT가 게릴라식 판매, 체험폰 판매, 대리점 월세 지원 병자 보조금 지급 등 다양

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난 주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점검을 받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KT 세일즈본부장 김재현 상무는 "기존 번호이동 시장은 고가 최신폰이 주도하면서 저가형 비중이 10% 안팎이었지만 단말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4배 가까이 늘었다"며 "출고가 인하는 (불법 보조금과 달리) 이용자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 단말기 확대를 위해 제조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특히 3일부터 6일까지의 황금 연휴기간에도 시장 점유율 30%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조금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를 한데 이어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전격적으로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연휴기간에 KT가 단독영업을

하면서 많은 가입자 유치를 기록하며 보조금 투입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쟁사들도 KT의 보조금 투입과 관련한 증거들을 수집해 방통위에 제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도 '응답하라 1990'

'반갑다 친구야' '프린세스메이커' 등 추억의 게임 출시

학창 시절 친구들과 즐길 수 있거나 어린 시절에 즐겨 했던 추억의 게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차례로 출시되는 게임들이다.

CJ E&M 넷마블의 '학교2014 : 반갑다 친구야'는 학교 동창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관계망게임(SNG)이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전학생이면서 학생회장이 된 주인공이 다시 일으켜세운다는 만화 같은 줄거리의 이 게임은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했으며 학교 이름을 입력해 동창들을 별도 친구로 추가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개발사인 라콘소프트는 게임 내에서 동아리나 짝꿍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다이어리 기능을 이용해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일종의 '전국민 모바일 동창회'를 게임 속에서 열 수 있는 셈이다. 게임 부제를 '반갑다 친구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SNG 기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후 1주일째 국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무료 앱 순위 2위, 무료 게임 앱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넷마블은 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인기 웹툰 '마조앤세디'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선물한다. 이 게임은 당초 지난달 22일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출시가 연기됐다. '마조앤세디'의 정철연 작가는 이 이모티콘 수익금 전액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넷마블도 성금을 마련해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엔게임이 역시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내놓은 '프린세스메이커'는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PC용 게임 '프린세스메이커'를 모바일로 재구성한 것이다.

PC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고전명작' 반열에 오른 이 게임은 이용자가 부모가 돼 10세 딸을 18세까지 키우는 게임이다.

지난 3월 사전등록 이벤트 당시 하루만에 예약자가 5만명을 넘어섰고, 게임 출시 전에 100만 달러에 중국에 수출까지 되는 등 높은 관심을 얻어왔다.

실제로 게임이 출시되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앱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국내 호응도 높다. /연합뉴스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특별이벤트 한정 메뉴

- 프리미엄 최상급 양파
- 부드러운 육류
- 부드러운 이삭이완만
- 올일종이 스테이크와 허브 숙성
- 최화형 무국채 신선양념

즉석요리
얼리치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이런?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UHD 24시간 UHD 전용 채널 (KBS2, MBC, SBS, JTBC 등) UHD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및 VOD 콘텐츠를 위한 전용 채널을 운영) 시청 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 UHD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
- 셋톱박스 없이 시청 가능 (헬로tv TV에서 시청 가능) (UHD 전용 셋톱박스 필요)

www.cjhellovision.com